



아파트 수요 많고 거래 활발...중·소형 대세

올 민간 아파트 84㎡ 이하 분양 6518 가구로 전체 98% 대형도 틈새시장서 인기...광주 분양가 3.3㎡당 961만원

올해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가 대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광주 지역에서 50가구 이상 분양된 민간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4㎡ 이하는 6518가구로 전체 6644가구 중 98.1% 달했다.

특히 인기 타입인 84㎡는 전체의 70.8%인 4335가구에 이르렀다. 82㎡ 188가

구, 78㎡ 104가구, 75㎡ 1019가구, 74㎡ 266가구, 69㎡ 112가구, 68㎡ 287가구, 64㎡ 47가구였다. 소형을 대표하는 59㎡ 역시 419가구를 차지했다.

이외에 대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110㎡는 66가구, 111㎡ 22가구, 115㎡ 37가구, 119㎡ 33가구, 218㎡ 2가구 등이다.

이처럼 중 소형 아파트 분양이 대세를 이룬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고 거래가 잘 이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1~2인 가구

등 핵가족화하면서 중·소형 아파트 수요가 커졌다"며 "앞으로도 중 소형 아파트 분양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중 소형 아파트 물량을 늘리면서 대형 아파트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월 화정동에 분양한 화정 엘리트 퍼스티지 110㎡(66가구)의 청약 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으며, 최근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동구 계림동에 분양한 계림8지구 그랜드센트럴 역시 119㎡(33가구)의 청약 경쟁률이 85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110㎡ 이상 대형 아파트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량은 달

려 청약 경쟁률이 높다"며 "입지가 좋은 오래된 대형 아파트의 경우 평당 매매가가 중 소형 아파트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말 기준 지역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광주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전남은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월보다 하락한 3.3㎡(1평)당 1009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시는 3.3㎡당 960만9000원, 전남은 3.3㎡당 760만6000원을 나타냈다. 광주와 전남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8만8000원과 32만3000원 올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은 22일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서 무석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중국 무석사무소는 광주은행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및 신사업 연구개발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중국 첫 발...강소성에 사무소

무석시에 개소...아시아 거점·글로벌 영업 전초기지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 22일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서 무석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측 인사로 상해총영사관 김재훈 재경관,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조순근 수석대표 및 주요 한국계 은행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황홍 무석시 상무부시장, 위다 신오구 당서기, 봉효춘 신오구청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진행했다.

송중욱 광주은행 은행장은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에 사무소를 개소하게

돼 벅찬 감격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무소 설립을 지원하고 승인해 주신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창립 49주년의 역사를 통해 축적된 광주은행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한중 양국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행홍 중국 무석시 상무부시장은 "강소성의 핵심도시인 무석시에 광주은행이 사무소를 설립함은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하며, 무석사무소가 중국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중국사업이 조기에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이 개소한 중국 무석사무소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및 신사업 연구개발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광주은행의 강점인 중소기업 및 개인 소매금융 사업을 중국시장에 접가, 구현하기 위해 중국 지방은행 및 주요도시의 금융투자기업과 상호 협력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JB금융그룹이 이미 진출 완료한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거점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 사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영업을 점차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무역수지 5억8500만불 흑자

10월 수출액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의 지난 10월 전체 수출액은 광주는 감소한 반면 전남은 석유제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주동식)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7억3000만 달러에 수입은 23.3% 증가한 3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광주가 4억8600만 달러, 전남은 9900만 달러로 광주와 전남지역은 총 5억85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광주지역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1% 감소한 1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수출은 4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8%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방직, 고무제품, 건전지·축전지,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한 2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 5월(19.8%) 이후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 수출은 석유제품,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합성고무 제품 등은 증가하고 철강관, 선박해양구조물·부품, 기타석유화학제품 등은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540.51 (+9.81)
- ↑ 금리 (국고채 3년) 2.17% (+0.01)
- ↓ 코스닥 780.90 (-8.48)
- ↓ 환율 (USD) 1089.10원 (-6.70)

“車 산업 발전, 협업·동반성장 중요”

중기중앙회 ‘광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

“자동차 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은 기업 간 협업과 투자입니다. IT 융합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관련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와 광주시, 한국산학협동연구원(원장 정용기)은 2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자동차와 ICT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열린 2017년 하반기 광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이준 광주그린카진흥원 전기차사업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와 ICT기술의 융합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전망과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단장은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은 중국기업 등의 추격으로 넉트래커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며 특히 산업간 협업 부족으로 IT와 부품기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정 기술을 쫓아가려 노력하기 보다는 우리지역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분야를 중심으로 업체 간 협업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향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추가발표에서 조규중 전남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미래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관련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광기술과 차체 부품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용훈 조선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ICT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선순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승학 호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ICT를 중심으로한 기술개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연계한 킬러업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장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앞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종과 업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과 투자가 핵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서로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분야를 중심으로 업체 간 협업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향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국세청 중소기업 세법 교실 운영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형)은 지난 21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2층)에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실무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법교실은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 업무용 승용자동차 세무처리 등 현장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중소기업 기업승계, 주식 관련 대주주(세율) 개정 내용 등 기업경영자가 평소 궁금해하는 테마 위주로 납세자의 눈높이

에서 강의가 이뤄졌다.

이와함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세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은형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법교실을 확대 운영해 세무문제에 대한 기업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자와의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냉방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상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진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렌트 이영 후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디나와와 플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